

(3) 1924년 봄의 공동경작투쟁

봄철 이앙기에는 항상 소작권이동 문제를 둘러싸고 농촌사회가 심한 몸살을 앓게 마련이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각 면 농민대회는 1월부터 무고한 작권이동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러다가 3, 4월에 접어들어 실지로 소작권이동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악지주나 악마름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의 이름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광고한다거나 직접 찾아가 성토히기로 하는 등 결의의 수준을 높여가기 시작하였다. 이런 열기를 바탕으로 1924년 4월 1일부터 순천농민대회연합회는 순회강연을 하면서, 면단위의 소작권이동 반대투쟁을 독려하였다.¹⁾

그러나 이때도 김학모, 박승봉, 김학순, 낙안향교 등은 농민대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작권이동을 강행하였다. 그러자 각 면 농민대회는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에 대처해나갔다. 가령, 60여 건의 이작사건이 발생하자 서면농민대회는 임시대회를 열어 교섭위원을 선정한다 뒤 지주와 마름을 직접 만나 대부분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²⁾

특히 1924년 봄에는 소작권이동에 반대한 공동경작투쟁이 대단히 활기를 띠었다. 예를들면, 순천면 지주 성정수의 소작지에서는 공동경작투쟁이 벌어져 농민대회 간부가 구속되었으며, 황전면에서는 박승봉이 면내 농민대회 회원의 소작지를 전부 박탈하자 농민대회 회원들이 리단위로 공동경작투쟁을 전개하다가 친구소작인 사이에 격투가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³⁾ 하지만 대부분의 면에서는 공동경작투쟁의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농민대회연합회가 춘계투쟁의 성과를 총평가하는 자리에서, “순천에서 무과실한 소작권이동은 900건에 달하였으나 각 면 농민대회의 활동으로 구소작인에게 복구된 것이 850여 건이며, 기타 40여 건은 지주의 완강함과 관헌의 제재로써 해결을 부득(不得)하여 이앙이 만시(晩時)된 차제(此際)에 분쟁이 있었으나 여기의 반수는 친구소작인의 타협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관측”한 것은 이들의 투쟁성고가 대단히 컸음을 반증한다.⁴⁾

순천지역의 소작농민들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924년 4월에는 각 면 농민대회 회장을 발기위원으로 하여 호상절초동맹준비회(互相折草同盟準備會)를 발기하고, 이를 매개로 공공연히 퇴비를 생산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일제가 산림보호를 이유로 삼림계를 설치하고 삼림 채벌(퇴비 마련)을 금지하자 순천농민들은 “산에 지천인 풀을 베어 퇴비를 마련치 못하고 비료를 사서 쓰는 것은 억울하다”, “재래의 습관과 같이 절초하여 퇴비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고 군청의 위협에 강경히 대처하였다.⁵⁾

또한, 순천지역의 농민단체는 고조기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전국단위의 노농단체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 창립대회에 참가한 순천지역 농민운동단체는 남선농민회연맹(나정완), 순천면농민대회(장국현), 낙안면농민대회(이건), 순천노농대회(송태섭), 순천농민대회연합회(김기수), 황전면농민대회(박병두), 쌍암면농민대회(조광현), 송광면농민대회(조규용), 순천노농청년회(이흥래·허영수), 외서면농민대

1) 『동아일보』 1924. 3. 9.

2) 『조선일보』 1924. 5. 17·1924. 5. 19·『동아일보』 1924. 5. 18·1924. 6. 6·1924. 6. 7.

3) 『동아일보』 1924. 6. 30·『조선일보』 1924. 7. 6·1924. 7. 12·1924. 7. 13.

4) 『동아일보』 1924. 7. 5.

5) 『조선일보』 1924. 4. 23. 이들은 1인당 30전의 회비(일종의 파업 준비금)를 받고 절초동맹 회원증을 교부한 뒤 조직적인 풀베기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절초동맹의 주요 임원은 張局鉉(위원장)·李仁京·金益洙·朴炳斗·金基洙·鄭河日 등이었다.

회(선영구), 동초면농민대회(황채현), 도사면농민대회(김익두), 서면농민대회(임태유), 별량면 농민대회(이창수)의 14개 단체였다.⁶⁾

이런 대외적 활동을 통해 순천지역의 소작운동은 수공업성과 독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순천군 상사면의 지주들은 조선노농총동맹이 창립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빼앗았던 소작권마저 돌려주는 형편이었다고 한다.⁷⁾

6)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선노농총동맹 가맹단체 일람표」, 『노농운동개황』, 1924(한홍구·이재화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총서』2, 경원문화사, 영인본).

7) 『조선일보』 1924. 5. 19.